



# “한 번 충전에 1시간반 쓸 수 있는 무선 인두기”

인두기는 납땀할 때 쓰는 공구다. 자동차 항공 금속 전기 전자 전선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의 기초 작업에 쓰이는 필수품이다. 지금까지 인두기는 가스를 충전해서 쓰는 인두기와 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뿐이었다. 하지만 가스 인두기는 가스 누출과 화재 폭발 위험성이 있고, 배터리 인두기는 건전지가 빨리 소모됐다. 지하나 야외 공사 및 납땀 현장에서는 전선이 달린 인두기를 연결할 수 있는 전원을 찾기 쉽지 않았다.

공구 전문업체 엑소는 ‘전기로 한 번 충전하면 오래 쓸 수 있는 안전한 휴대용 인두기’를 1년 반 동안 개발해 올해 초 시장에 내놨다.

◆예열 시간도 대폭 줄여 ‘충전용 무선 인두기(EX-376)’의 원리는 간단하다. 삼성SDI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한 번 충전(2시간 반)하면 1시간 반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선을 없애고 휴대용으로 작고 가볍게 제작했다. 이처럼 충전해서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 인두기는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예열 시간은 기존 제품(30초)보다 10초가량 줄었다. 최대 420도까지 인두팁의 온도가 올라가 높은 온도에서도 납땀 작업을 할 수 있다. 제품 전반엔 LED(발광다이오



문형세 엑소 대표가 충전용 무선 인두기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충전식 인두기론 세계 최초 가스충전식·건전지 방식 대체**

**“기술로 일본 넘어서겠다”**

**LED 달아 야간 작업 가능**

**권총 모양 제품 곧 내놔**

품이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경쟁력이 우월했는데 우리가 이 제품을 자체 개발해 내놓으면서 한 발 앞서가게 됐다”고 말했다.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다. 30년 넘게 일한 기술자들마저 ‘전선 없는 충전용 인두기를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1년 반의 연구개발 끝에 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돼 판매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금의 일자 모형을 권총처럼 디자인한 업그레이드 제품을 또 내놓자는 의견이 나왔고, 권총형 인두기를 곧 선보일 계획이다.

가격은 4만원이다. 전국 200여 개 공구 대리점을 비롯해 전문 소품몰, DIY몰 등에서 판매한다. 올해 초 시장에 나온 뒤 1만여 개 이상 팔렸다. DIY 수요가 늘면서 솔더, 니퍼 등으로 구성된 인두기 패키지 제품도 선보였다.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전시회에 출품하고 있다. 미국 이베이에 입점했으며 중국 알리바바 등과 판매 조건을 논의 중이다.

◆국내 전기공구 1위 업체 공구는 회전하는 전동공구와 인두기처럼 열을 내는 전기공구로 나뉜다. 엑소는 국내 전기공구 시장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회사의 전신은 문 대표가

1978년 부산에 설립한 진양전기공업사다. 엑소는 진양공업사에서 생산하던 공구 상표명이었다. 1997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명을 엑소로 바꿨다. 엑소는 영어로 ‘가장 뛰어난 인두기’라는 뜻이다.

주력 제품은 인두기와 글루건, 솔더링 스테이션 등의 전기공구다. 제품 종류만 2000여 개가 넘는다. 올해 매출 95억원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표는 “내년 3월께 로봇 공구인 ‘로봇용 인두기’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 데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네오코-음이온 정병소독기 (032)572-5432 △나노소프트-스마트체중계 (042)633-1517 △아이엔에이치-휴대용 위조지폐 감별기 (02)853-7497 △엑소-충전용 무선 인두기 (051)302-1006



결제단말기 세계 4위 블루버드 이장원 대표

# “휴대폰만한 단말기로 승부”

“죽구, 마누라, 탈모 등 모든 주제에 대해 사용자들과 밤새워 얘기합니다.”

산업용 단말기제조업체 블루버드 이장원 대표(사진)는 소비자의 의견을 수집하는 데 업무시간의 절반을 쓴다. 제품의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블루버드는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제단말기를 주로 만든다. 집배원이 쓰는 자동인식단말기, 조선소와 건설현장의 산업용 태블릿 PC 등도 이 회사 제품이

다. 현장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조언이 제품 콘셉트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대표가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업무가 ‘정보보고’인 것도 이 때문이다.

1995년 설립된 이 회사가 국내 산업용 단말기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4위에 오른 것도 이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세계 120개국에서 3000여개 회사가 블루버드 제품을 쓴다. 올해는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출연 중인 프로그램 ‘월드클래스 300’

에도 선정됐다.

블루버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통신기술과 프린터 기능이 합쳐진 단말기(제품명 BIP1000)를 내놨다. 사용자가 이동하면서 조작할 수 있는 최초의 결제단말기였다. 이 제품을 들고 해외로 나갔지만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기능은 획기적이었지만 해외 바이어들은 겉모습만 보고 ‘내구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작고 아담한 디자인을 고집했다. 현장에서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손으로 잡기 편하고 디자인도 좋게 제품을

개발했다. 2005년 해외시장을 뚫은 뒤 가속도가 붙었다. 지금은 매출의 95%가량이 해외에서 나온다. 2012년에는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하며 디자인 역량도 인정받았다. 현장용 중시하는 그의 고집 스타일이 통한 것이다.

블루버드는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와 결제까지 하는 단말기를 개발 중이다. 예컨대 마트에서 쓰는 카드에 단말기를 달아놓고 결제하게 한 제품이 있다. 식당에서 손님이 직접 주문을 넣을 수 있게 한 단말기도 있다. 이 대표는 “산업용 제품을 넘어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말기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수기자 onething@hankyung.com

# 부산으로 유학 온 중국 학생, 中 小 企 수출 지원나섰다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동명대 재학생과 중국 유학생이 중국 직원들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 김희정 기자

**중기청·동명대·부산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부산울산중소기업청과 부산시, 동명대는 지역 중소기업과 부산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 한국 학생을 연결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영부 동명대 산학협력지원센터장은 “현지 사정에 밝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전방위 마케팅을 통해 부산지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인 유학생 24

명, 한국 학생 17명 등 총 41명이 부산지역 32개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국시장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8월 한국과 중국 학생 각 1명씩 2명이 팀을 구성해 수출 지원활동을 시작한 이후 4개월 만에 13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수출 상담과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규모는 192만달러에 이른다. 동명대 관계자는 “참가 학생에게는 월 20만원의 현장실습비를, 실적 우수자에게는 50만~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정주에서 열린 오송 뷰티박람회에 참가한 기능성 화

장품 업체 라모수는 현장에서 만난 홍콩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수출업무를 학생팀에 맡겼다. 이들은 12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이끌어 냈다. 기능성 화장품 업체인 상황미인도 지난 10월부터 학생팀을 중국 16개 자사 매장에 파견해 판매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매출이 20% 이상 늘었다. 김진형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은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받고, 중국 유학생은 국내 기업과의 유대관계를 쌓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유학생을 참여시키는 등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기자 hyun@hankyung.com

스마트공장 표준화 세미나 표준협회, 16일 개최

한국표준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서울 강남 한국기술센터에서 ‘스마트공장 표준화 세미나’를 연다. 스마트공장 및 공장 자동화,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국제 표준화 최신 동향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도 소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표준협회 홈페이지(www.ks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표준협회 관계자는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주요 기업별로 제작과 관련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접목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스마트공장 표준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 선양에 한국 중기제품 전용관 연다

중국 라오닝성 선양에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생긴다. 중소기업청은 라오닝성 정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두 나라 중소기업 간 무역·투자·기술이전과 산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 선양에 한국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

장을 열어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라오닝성 정부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업체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두 나라는 또 상대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위해 투자설명회와 국제전술회를 여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이현동기자 gray@hankyung.com

아시아나항공 7 야마구치 우베공항 직항 전세기 취항 기념!

**숲과 호수 속의 동성산 자연 속의 서일본 최대72홀 골프장 “우베72컨트리클럽”**

일본 야마구치현에 위치한 우베72컨트리클럽은 겨울철에도 바람이 적고 낮 기온이 10~15도로 온화한 기후 풍부한 자연과 온천시설을 가지고 있어 동계 골프투어의 목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1960년 개장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베72컨트리클럽은 서일본 최대의 72홀을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으로 아지스, 만년이케, 서, 에바타이케 4개의 특색 있는 코스 가 있다. “평소에는 후쿠오카 공항이나 히로시마 공항을 이용해 이동거리가 먼 단점이 있었으나” 아시아나항공 전세기편을 이용하면 15~20분에 골프장에 도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베 72 C.C 골프(45홀/수) 3일** 파격특가 599,000 ▶12/16,23 단회

799,000부터 ▶1/6,13,20,27 2/3,10,17,24 3/2,9,16,23

**우베 72 C.C 골프(72홀/금) 3일**

1,090,000부터 ▶1/8,15,22,29 2/5,12,19,26 999,000부터 ▶3/4,11,18,25

**우베 72 C.C 골프(72홀/일) 4일** 파격특가 599,000 ▶12/20 단회

799,000부터 ▶1/10,17,24,31 2/7,14,21,28 3/6,13,20,27

★유다온천 토키와 료칸 숙박시 10만원 추가

<b>J-holiday</b>	문·의·전·화 02)6349-4949
<b>KRT</b>	문·의·전·화 02)2124-5555
<b>롯데관광</b> LOTTE TOUR	문·의·전·화 02)2075-3001
기름없는 직판여행 NO.1 <b>YBTOUR</b>	문·의·전·화 02)2022-7291

야마구치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트레킹

오사카

400년전 전하는 마을